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과 우울 증상 간의 관련성

Latent Profile Analysi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ts Associ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1차원고접수: 2023.09.19. 수정원고접수: 2023.11.27. 최종게재결정: 2023.12.13.

권오연¹ · 임정하²

¹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수료

²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Kwon, Ohyeon¹

Lim, JungHa²

¹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²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수도권에 있는 중·고등학교 3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각 차원으로 할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들 유형을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7.1%), 비통제부모형(67.6%), 낮은통제부모형(17.1%), 높은통제부모형(8.2%)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비통제부모형 부모의 자녀들은 나머지 유형 부모의 자녀들보다 우울 증상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별 특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부모, 청소년, 심리적 통제, 우울 증상, 잠재프로파일 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profil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pecifically focusing on separation-anxious psychological control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ir associ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children. Participants were 36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level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epressive symptoms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findings from the latent profile analysis indicated the existence of four distinct sub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as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high maternal separation-anxiety control (HMSC, 7.1%), no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NPPC, 67.6%), low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LPPC, 17.2%), and high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HPPC, 8.2%). Adolescent children in the NPPC profile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when compared to those in the other profi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sychological control even from a parent may aggravate depressive symptoms of adolescents.

Keywords parents, adolescent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ve symptoms, latent profile analysi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정서적, 인지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Schonert-Reichl & Muller, 1996).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과도한 학구열이나 경쟁과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부모는 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미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점차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적인 시간

Corresponding to 임정하 (Lim, JungHa)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jhlim@korea.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과 공간을 존중받고자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양육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청소년 자녀가 받는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관점을 하찮게 여기고, 부모-자녀의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표현과 경험을 제한하고, 자녀를 부모의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양육행동이다(Barber, 1996).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조건적 애정, 불안 유도, 애정 철회, 자녀의 관점 무효화, 죄책감 유발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 생각, 감정을 방해하고 조종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 Duriez와 Goossens(2006)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단일 차원으로 보는 대신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 부모는 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동이다. 이와 달리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수준을 기대하고 자녀의 성취 정도가 부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동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될지라도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는 독립과 자율의 욕구를 가지기 시작하고 스스로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김선하, 김춘경, 2006).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독립과 자율의 욕구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Barber, 1996). 이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선행연구들에서 꾸준히 입증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청소년 자녀들은 우울, 사회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연, 임정하, 2019; 안명희, 신희수, 2012; 장여옥, 2015; 최은경, 임정하, 2018).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존중감(이은경, 박성연, 2011), 자기효능감(유정옥, 정문경, 2016; 최태산, 김자경, 2015), 자기통제력(배소윤, 김희화, 2021)과 같은 자녀의 자아발달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어 왔다. 다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의 심리적 통제 수준만을 평가하거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점수를 하나로 합산하여 살펴 보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기 다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Bosco, Renk, Dinger, Epstein, & Phares, 2003). 실제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심리적 통제의 수준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 예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Barber, Bean과 Erikson의 연구(2002)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수준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권오연, 임정하, 2019)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Nelson & Crick, 2002)도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보다 자녀의 발달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Lo Cascio, Guzzo, Pace, Pace, & Madonia, 2016)도 발표되었다.

이처럼 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 수준과 그 영향력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각각 평가한 이후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종합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이때, 심리적 통제를 분리불안 통제차원과 성취지향 통제차원으로 구분해 각각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패턴은 문화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나 특성은 어떤 문화권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관계지향적인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은 개인독립지향적인 문화권인 서양과는 달리 가족 간의 상호의존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조한다(정옥분, 2015). 실제로 Dwairy와 Achoui(2010)가 문화권에 따라 부모의 통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호관계지향적인 문화권인 동양의 부모들은 개인독립지향적 문화권인 서양의 부모들보다 자녀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녀들을 더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지하고 자녀를 더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하는 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취지향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는 대학 입시가 매우 중요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이에,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부모와 자녀들은 과도한 학구열과 경쟁에 집중하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일상과 학업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게 된다. 즉 한국 가족의 전반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와 심리적 존재 의식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성취적인 부분을 특히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한국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패턴은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

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대사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패턴은 과거의 양육모델과는 다른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모 양육모델은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를 의미하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통념화된 부모상에서 벗어나 아버지도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특성을 띠기 시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하는 연구들(권오연, 임정하, 2021; 조순옥, 채수은, 2016)도 다수 발표되었다. 즉 현대사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특성은 과거의 엄부자모 특성이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패턴은 심리적 통제의 유형과 시대·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현재 한국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특성과 패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단편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특성과 패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양육행동의 정확한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Barber, 199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패턴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특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별로 자녀의 우울 증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특히 우울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로,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서적 문

제 중 하나이다(정옥분, 2006). 그리고 우울은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우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Hankin, 2006). 우울이란 자기 자신, 미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에 따라 무관심, 실망감, 슬픔을 경험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다(Beck, 1976). 우울은 상황에 따른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우울 기분(depression mood), 증상으로서 지속되어 나타나는 상태인 우울 증상(depressive symptoms), 그리고 임상 진단군인 우울증(depressive disorder)으로 구분된다(김미령, 2014; 김영아, 2000).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 나타나는 상태인 우울 증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과거 혹은 현재에서의 양육자와의 경험은 자녀의 우울 증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Blatt, 2004). 부모가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녀의 심리적인 적응을 방해하며(Rudy, Awong, & Lambert, 2008),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킨다(McLeod, Weisz, & Wood, 2007).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른 한국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 심리적 통제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자녀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

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에서 남학생은 180명(49.0%), 여학생은 187명(51.0%)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16.67세($SD = 1.59$)이었다.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38명(10.4%), 2학년 97명(26.4%), 3학년 9명(2.4%), 고등학교 1학년 27명(7.4%), 2학년 196명(53.4%)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47.4%, 모: 47.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116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과 기술기능직은 34명(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103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 55명(15.0%), 전문직 43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고자 Soenens와 Vansteenkiste(2007)가 개발한 DAPC(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를 박성연과 이은경(2009)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심리적 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통제 중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9문항,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8문항으로, 전체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separation anxiety psychological control) 요인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불안감을 느껴 행하

게 되는 양육 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집을 떠나 아주 독립하게 된다면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도록 하실 것이다’ 등이 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achievement 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요인은 부모의 성취적 기준을 자녀가 따르도록 하고자 행하게 되는 양육 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만, 나에게 사랑을 보이신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대해 청소년 자녀가 응답한다. 각 항목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된다.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해당 차원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연과 이은경(2009)은 변별타당도, 구인타당도,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s α 는 .86 ~ .90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88,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93,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91, 어머니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95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심리적 통제 전체는 .93, 어머니 심리적 통제 전체는 .95로 나타났다.

2) 우울 증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고자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검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이고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측정한다. 우울 감정 요인(7문항)은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측정하며, 예시 문항으로는 ‘슬픔을 느꼈다’ 등이 있다. 긍정적 감정 요인(4문항)은 희망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측정하며, 예시 문항으로는 ‘생활이 즐거웠다’ 등이 있다. 신체 및 행동 둔화

요인(7문항)은 생활하는 데 있어 귀찮고 일을 하기 힘든 감정을 측정하며, 예시 문항으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등이 있다. 대인관계 요인(2문항)은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낀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 문항으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청소년 자녀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각 항목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극히 드물게(1점)’, ‘가끔(2점)’, ‘자주(3점)’, ‘거의 대부분(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긍정적 감정 요인 문항들의 점수는 역채점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우울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검구 등(2001)은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우울 증상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는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우울 감정 .95, 긍정적 감정 .88, 신체 및 행동 둔화 .80, 대인관계 .79, 청소년의 우울 증상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 409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교사들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협조를 구하였다. 교사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연구 목적, 소요 시간, 비밀 보장 원칙, 설문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구에 익명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들과 협조 교사에게는 작은 답례품을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31부)하거나 미응답된 설문지(11부)를 제외한 367부(89.7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4.0과 Mplus 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 증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및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성별에 따른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고자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의 3가지 통계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정보지수는 AIC(Akaike, 1974), BIC(Schwartz, 1978), Adjusted BIC(Sclove, 1987)를 살펴보았으며, 이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합치도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의 질의 경우 Entropy(Celeux & Soromenho, 1996) 값을 확인하였다. Entropy 값은 0 ~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8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Clark, 2010). 모형비교검증은 LRT(Lo, Mendell, & Rubin, 2001)와 BLRT(McLachlan & Peel, 2000)를 확인하였다. 이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k 개인 때와 $k-1$ 개인 때를 비교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만약 p 값이 유의하다면, $k-1$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보다 k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은 적합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k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에, 결과의 p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른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부모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우울 증상과의 관련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유형화하기

에 앞서, 부모의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수준이 아버지와 어머니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모두 부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대응표본 t 검증 ($N = 367$)

	아버지	어머니	t
	M (SD)	M (SD)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1.62 (.62)	1.62 (.71)	.33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1.39 (.60)	1.41 (.65)	-.87

다음으로, 부모의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간에는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r = .53 \sim .70, p < .001$).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부: $r = .32, p < .001$; 모: $r = .39, p < .001$),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부: $r = .28, p < .001$; 모: $r = .36, p < .001$)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표 2.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의 상관관계 ($N = 367$)

	아버지		우울 증상
	분리불안	성취지향	
어머니	분리불안	.65***	.39***
	성취지향	.54***	.36***
우울 증상	.32***	.28***	-

*** $p < .001$.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 유형화

1)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을 유형화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AIC, BIC, Adjusted BIC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을 살펴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많아질수록 AIC, BIC, Adjusted BIC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Entropy 값이 .80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모형에서 Entropy 값이 .90 이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 .960으로 분류의 질이 가장 높았다. LRT와 BLRT 값의 경우,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k 개일 때의 모형과 $k-1$ 개일 때의 모형을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나타내주는 모형비교 검증 값이다. LRT, BLRT 값을 살펴보았을 때,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 4개인 모형의 적합도가 이전 모형의 적합도보다 유의하게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RT, BLRT와 같은 적합도 지수들을 통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였다.

2) 잠재프로파일별 특성 분석

최종모형인 네 개의 부모 심리적 통제 유형별로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점수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점수는 표준화 점수인 Z 점수로 변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그림 1과 같다. Z 점수는 전체 표본의 평균 점수와 각 변인별 평균 점수 간 차이를 보여주는 값이다. Z 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절대적인 평균 점수만 살펴보는 것보다 각 유형별 심리적 통제의 점수들이 평균 점수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형별 차이를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첫 번째 잠재집단 유형(7.1%)에는 가장 적은 수의 응답자가 속하였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한 청소년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편이라고 지각하였으며, 어머니도 자신을 성취적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편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의 청소년 자녀들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자 할 때, 어머니가 본인을 보통 수준에서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하였다. 이 유형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분리불안 통제어머니형’으로 명명하였다. 실제로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 부모의 자녀들은 아버지는 자신을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지만, 어머니는 청소년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 불안해하며 통제한다고 지각하였다.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에 포함된 청소년 자녀들의 성비는 남학생 8명(30.8%), 여학생 18명(69.2%)이었다.

두 번째 잠재집단 유형(67.6%)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을 심리적으로 전혀 통제하지 않는 편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두 번째 유형을 ‘비통제부모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다른 유형들과 비통제부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비통제부모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성

표 3.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

k	df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RT p	BLRT p	집단 내 분류 비율 (%)				
								1	2	3	4	5
2	13	2117.317	2168.087	2126.842	.948	<.001	<.001	75.7	24.3			
3	18	1894.934	1965.230	1908.123	.956	.547	<.001	21.0	70.8	8.2		
4	23	1751.033	1840.856	1767.886	.960	.040	<.001	7.1	67.6	17.2	8.2	
5	28	1682.567	1791.917	1703.084	.944	.520	<.001	8.2	4.9	64.6	13.9	8.4

주. k = 잠재프로파일의 수, df = 자유도, AIC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RT =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 compared with a ($k-1$) class model.

취지향 심리적 통제 수준은 다른 어떤 유형들보다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통제부모형에 포함된 청소년 자녀들의 성비는 남학생 122명(49.2%), 여학생 126명(50.8%)이었다.

세 번째 잠재집단 유형(17.1%)에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속하였다.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된 청소년 자녀들은 본인의 부모가 대체로 자신을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편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세 번째 유형을 ‘낮은통제부모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낮은통제부모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가 대체로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수준은 전체 평균 점수나 비통제부모형의 평균 점수들보다는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낮은통제부모형은 부모가 전혀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비통제부모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통제부모형에 포함된 청소년 자녀들의 성비는 남학생 35명(55.6%), 여학생 28명(44.4%)이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재집단 유형(8.2%)에는 소수의 응답자들이 속하였다. 네 번째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할 때, 그리고 자신이 부모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보통 수준에서 자신을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하였다. 이 유형의 특징적인 점은 표준화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보통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나, 표준화 점수를 통해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표 4. 부모 심리적 통제 유형별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367$)

			유형 1 (7.1%)	유형 2 (67.6%)	유형 3 (17.1%)	유형 4 (8.2%)	전체 (100%)
아버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M (SD)$	1.92 (.61)	1.33 (.38)	2.09 (.35)	2.81 (.63)	1.62 (.62)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M (SD)$	1.21 (.24)	1.07 (.15)	1.95 (.23)	2.96 (.34)	1.39 (.60)
어머니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M (SD)$	2.98 (.54)	1.25 (.34)	2.00 (.53)	2.64 (.57)	1.62 (.71)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M (SD)$	1.97 (.83)	1.08 (.23)	1.90 (.54)	2.60 (.70)	1.41 (.65)

주. 볼드체는 각 변인의 평균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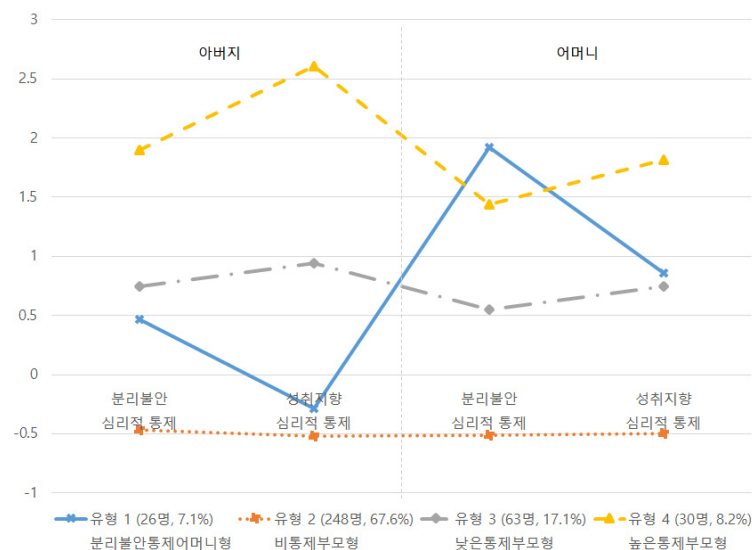


그림 1. 부모 심리적 통제 잠재집단 유형(Z점수 변환)

통제를 제외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높은통제부모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높은통제부모형 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아버지가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이고, 어머니도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이라고 지각한 것이다. 더불어, 높은통제부모형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또한 전체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높은통제부모형에 포함된 청소년 자녀들의 성비는 남학생 15명(50.0%), 여학생 15명(50.0%)이었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의 차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증상 평균을 살펴본 결과, 높은통제부모형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M = 2.35$, $SD = .6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M = 2.12$, $SD = .56$), 낮은통제부모형($M = 1.97$, $SD = .52$), 비통제부모형($M = 1.74$, $SD = .49$) 순으로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개의 유형들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라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16.38$, $p < .001$). 심리적 통제 수준과 양상을 바탕으로 비통제부모형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은 나머지 유형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이 보고한 우울 증상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낮은통제부모형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은 높은통제부모형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각 유형별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을 살펴보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유형은 최종적으로 네 개의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각 유형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7.1%), 비통제부모형(67.6%), 낮은통제부모형(17.1%), 높은통제부모형(8.2%)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비통제부모형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편이라고 지각하였다. 비통제부모형 부모는 전체 표본의 67.6%로, 대다수의 청소년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음

표 5.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의 차이

($N = 367$)

종속변수	잠재계층	평균	표준편차	F	다중비교
우울 증상	1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	2.12	.56	16.38***	2 < 1 2 < 3 < 4
	2 (비통제부모형)	1.74	.49		
	3 (낮은통제부모형)	1.97	.52		
	4 (높은통제부모형)	2.35	.67		

*** $p < .001$.

을 알 수 있다. 과거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부모 역할은 엄부자모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엄격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역할을, 어머니는 자애롭고 따뜻한 역할을 수행하였다(정옥분, 2006).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를 통제하기보다는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은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행동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김기승, 함혜수, 2019). 또한, 아버지도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특성을 띠게 됨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들(권오연, 임정하, 2021; 조순옥, 채수은, 2016)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유사하게 온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가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낮은통제부모형이었으며, 전체의 17.1%를 차지하였다. 이 유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대체로 하지 않는 편이었다. 낮은통제부모형 부모의 특징은 청소년 자녀들이 보고한 심리적 통제 평균 점수와 Z점수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다. 낮은통제부모형 부모의 자녀들이 보고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평균 점수는 2점 전후이다. 즉 자녀들은 부모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대체로 하지 않는 편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Z점수를 통해 다른 유형들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통제부모형으로 분류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효(孝)를 강조하고 집단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인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서양에 비해 보다 보편적인 경향이 있다(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일부 청소년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유형은 높은통제부모형으로, 전체의 8.2%로 나타나 다소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높은통제부모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의 청소년 자녀들이 응답한 실점수와 표준화 점수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높은통제부모형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수준을 보통 수준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표준화 점수로 다른 유형들의 점수들 및 전체 평균 점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점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높은 심리적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통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들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상호관계지향적 문화권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유아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밀접한 관계를 쌓아나가고, 부모와 자녀 모두 과도한 학구열과 경쟁에 익숙해져 있다. 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관여와 관심을 쏟게 되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관여가 하나의 관심이라 생각하여 익숙해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동양권인 중국과 서양권인 캐나다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본 연구(Helwig, To, Wang, Liu, & Yang, 2014)에 따르면, 캐나다에 비해 중국의 자녀들은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편이었으나, 이에 대해 크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통제부모형의 특성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으로,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유형이었다. 해당 유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이다.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은

본인이 독립된 존재로서 분리되고자 할 때 특히 어머니가 불안감을 느껴 자신을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자녀들의 성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으로 분류된 26명의 청소년 자녀들 중 18명이 여학생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69.2%로 70%에 달하는 비율이다. 즉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 부모를 둔 청소년 자녀에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는 여학생들이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고자 할 때, 어머니들은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여학생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통제부모형으로 분류된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나머지 유형의 부모를 둔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통제부모형 부모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도,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도 전혀 하지 않는 편이었다. 즉 비통제부모형 아버지와 어머니는 청소년의 자율에 대한 욕구를 인정해주고 부모의 성취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기에,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통제부모형으로 분류된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 수준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높은통제부모형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성취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심화시켰다는 연구(김희영, 박성연, 2008)와 일치한다. 그리고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은 높은통제부모형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단 한 명의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형 중에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이 낮은 유형은 비통제부모형과 낮은통제부모형이다. 두 유형은 전체의 84.8%에 달하였으며, 청소년 자녀의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현대사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청소년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체 유형 중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은 7.1%, 높은통제부모형은 8.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형 중 정서적인 어려움에 가장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높은통제부모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으며,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으로 분류된 청소년들도 정서적 어려움을 가끔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높은통제부모형과 분리불안통제어머니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식별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는 경험적 자료에 따라 유형화되기 때문에, 분류된 유형은 연구표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모든 청소년과 부모에게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 더욱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표본을 대상으로 살펴본다면, 더 다양한 청소년과 부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유형화하고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초·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하여 부모 심리적 통제 유형의 변화를 확인한다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과 청소년기 대표적 정서 문제인 우울 증상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는 단편적이지 않으며, 우울 증상 외의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과의 관련성은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정서적 문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 간의 관계성을 다각도에서 살펴본다면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와 부모 개입 방법에 대한 방향을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른 심리적 통제 유형이 한국적 맥락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따른 유형별로 청소년의 우울 증상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 증상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부모들의 심리적 통제 유형에 대한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부모와 청소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오연, 임정하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6(2), 37-57.
<https://doi.org/10.15284/kjhd.2019.26.2.37>
- 권오연, 임정하 (2021). 부모 양육행동 유형 연구: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를 이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인간발달연구*, 28(4), 1-20.
<https://doi.org/10.15284/kjhd.2021.28.4.1>
- 김기승, 함혜수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9), 440-450.
<https://doi.org/10.5762/KAIS.2019.20.9.440>
- 김미령 (2014). 자기초점주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효과. *종교교육학연구*, 44, 21-44.
- 김선하, 김춘경 (2006). 사회-환경적 변인과 인지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7(6), 249-261.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영, 박성연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박성연, 이은경 (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29.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6(2), 109-141.
- 배소윤, 김희화 (2021).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기본 심리욕구 및 자기통제력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인과적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9(2), 37-48.
<https://doi.org/10.55063/KIYFE.2021.19.2.4>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유정옥, 정문경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73-95.
<https://doi.org/10.21509/KJYS.2016.10.23.10.73>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장여옥 (201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2), 199-221.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15).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조순옥, 채수은 (2016).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의 관계: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4), 61-80.
- 최은경, 임정하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101-127.
<https://doi.org/10.14816/sky.2018.29.3.101>
- 최태산, 김자경 (20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363-384.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https://doi.org/10.1109/tac.1974.110070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2307/1131780>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2).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63-2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ttps://doi.org/10.1037/10422-00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https://doi.org/10.1037/10422-002>
- Blatt, S. J. (2004). *Experiences of depression: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749-000>
- Bosco, G. L., Renk, K., Dinger, T. M., Epstein, M. K., & Phares, V. (2003). The connections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parental psychological symptoms, and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179-200.
[https://doi.org/10.1016/s0193-3973\(03\)00044-3](https://doi.org/10.1016/s0193-3973(03)00044-3)
- Celeux, G., & Soromenho, G. (1996). An entropy criterion for assessing the number of clusters in a mixture model. *Journal of Classification*, 13(2), 195-212.
<https://doi.org/10.1007/bf01246098>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Dwairy, M., & Achoui, M. (2010). Parental control: A second cross-cultural research on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1), 16-22.
<https://doi.org/10.1007/s10826-009-9334-2>
- Hankin, B. L. (2006). Adolescent depression: Description, causes, and interventions. *Epilepsy & Behavior*, 8(1), 102-114. <https://doi.org/10.1016/j.yebeh.2005.10.012>
- Helwig, C. C., To, S., Wang, Q., Liu, C., & Yang, S. (2014). Judgments and reasoning about parental discipline involving induc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China and Canada. *Child Development*, 85(3), 1150-1167.
<https://doi.org/10.1111/cdev.12183>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1),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 Lo Cascio, V., Guzzo, G., Pace, F., Pace, U., & Madonia, C. (2016). The relationship among paterna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elf-esteem, and indecisiveness across adolescent genders. *Current Psychology*, 35, 467-477.
<https://doi.org/10.1007/s12144-015-9315-0>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McLeod, B. D., Weisz, J. R., & Wood, J. J.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depress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8), 986-1003.
<https://doi.org/10.1016/j.cpr.2007.03.001>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22-006>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https://doi.org/10.1037/0033-2909.128.1.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https://doi.org/10.1177/0272431603258344>
- Rudy, D., Awong, T., & Lambert, M. (2008).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horitarianism in Chinese-Canadian and European-Canadian cultural groups: Their meanings and implica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adjustmen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9(4), 471-490.
<https://doi.org/10.3138/jcfs.39.4.471>
- Schonert-Reichl, K. A., & Muller, J. R. (1996).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6), 705-731.
<https://doi.org/10.1007/bf01537450>
-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https://doi.org/10.1214/aos/1176344136>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https://doi.org/10.1007/bf02294360>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Chair) (Ed.),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SRCD), Boston, MA.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6). In search of the sources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4), 539-559.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6.00507.x>